

01 교회소식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주님 사랑으로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어버이날 및 어린이주일 축하 행사, 콜롬비아만민교회 창립 11주년 예배 등 국내외 소식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주 안에서 ‘성결’은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을 닮아감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03 기획특집

마음의 활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활력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을 살펴봄으로 자신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본다.

04 간증

“치료의 주님, 감사해요!”

믿음으로 기도 받아 오십견, 갱년기 증상 등이 치료되고 56년 된 변비가 치료되는가 하면 딸의 안면 기형을 치료받은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93호 2023년 5월 1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콜롬비아만민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이미경 목사 초청 랜선 예배



지난 5월 1일(월) 오전 9시(현지 시각 4월 30일(주일) 오후 7시), 우리 교회 교역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를 강사로 콜롬비아만민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가 랜선으로 진행되었다. 줌(zoom),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콜롬비아뿐 아니라 페루,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멕시코, 에콰도르, 스페인, 미국, 캐나다,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총 14개국에서 함께했다.

장정연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하늘 영광 팀(콜롬비아만민교회)과 서성원 집사(예능위원회)의 특송 후 이미경 목사가 ‘꿈을 갖고 이루는 자’(창 13:14~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진 은사 집회를 통해 이미경 목사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줌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콜롬비아만민교회는 현재 20개 지교회와 많은 협력 교회와 더불어 중남미 및 스페인어권 성도들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방송 되는 콜롬비아만민교회 예배와 기도회에 함께하고 있다. 한편, 엔라세 방송에서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설교가 방송되고 있다.

어버이날 기념 및 어린이 주일 축하 행사 가져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난 5월 4일(목) 오전 11시, 권사 회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2023 어버이 행사’가 3층 예배실에서 있었다.

이성숙 권사의 인도로 준비찬양이 있고 난 뒤 연합회장 차남영 권사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해 교역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의 설교와 기도,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총무 김진희 권사의 사회로 시작한 축하공연은 이명숙 권사의 아름다운 부채춤과 장구춤, 해피니스 우쿨렐레 팀의 ‘아버이의 마음’ 등의 노래와 연주로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었다. 또한 기념품과 점심 대접으로 주 안에서 더욱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유튜브 생방송 되는 가운데 ‘2023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었다. 나건후 어린이의 대표 기도를 시작으로 박예나 어린이의 성경 봉독, 아동 예능부 특송 후 교장 장성식 목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삼상 16:7)을 설교했다.

그 뒤 기도를 통해 폐렴, 화상, 피부병 등을 치료받고 사고에서 지킴 받는 등 다양한 간증들을 체험한 아동들이 직접 나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했다. 이후 그동안의 행사와 활동사진 등을 모은 영상을 통해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성령 충만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어린이들은 물론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한 가족들도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만민뉴스 창간 36주년 맞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국내의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지, 만민뉴스가 창간 36주년을 맞는다.

1987년 5월 17일 한글판 창간 이후, 1991년에는 영문판 발간을 시작으로 2012년에 인터넷 만민뉴스(www.manminnews.com) 서비스를 시작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어, 우르두어, 싱할리어, 힌디어 등으로 발간돼 전 세계 만민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 국내외 선교 소식,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련된 기획특집 기사 등의 구성으로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성결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15)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많은 천군과 천사가 있고 이 땅에도 온갖 동식물을 창조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은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창 1:26~28).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롬 6:23). 결국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대신 원수 마귀를 닮아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질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마치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어 가는 자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사람을 위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성결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결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성결의 의미와 중요성

성결의 사전적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함'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성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고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을 닮아감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사명이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내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신 까닭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므로 성결된 삶을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고,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했으니, 성결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한 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영접한 후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로 타락해 집짓 범죄해 나가면 십자가의 구속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성결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2. 마음의 성결을 이루는 방법

그렇다면 마음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니 성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심비에 새겨 실생활에서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명하신 계명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 나갈 것이니 전혀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판단 정죄하지 말라’ 등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등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들이 있지요. 이 같은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은 죄를 싸워버리고 말씀대로 행하므로 진리가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결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결을 이루는 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한 대로(눅 17:21) 죄를 버리는 만큼 그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임하지요. 천국이라 해도 다 같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악을 버리고 충성했느냐에 따라 처소와 상급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뜨거워지므로 더욱 열심히 죄를 싸워 버리며 성결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결은 성도의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3. 하나님께서 성결을 원하시는 이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하시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성결을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생령 아담은 참으로 선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진리와 선만 가르침을 받았기에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지요. 이처럼 죄악이 없는 상태에서 아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며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자, 영계의 법칙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한 말씀대로 범죄한 아담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령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가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에게 넘어갔고,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점차 죄악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결국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원수 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사람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영적인 권세를 되찾아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인간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입니다. 바로 성결이 유일한 길이지요.

영의 세계에서는 성결이 곧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본래 하나님께서 생령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를 회복해 원수 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계명을 지키는 만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영계를 뚫어나갈 수 있으며, 항상 축복된 길로 나갈 수 있지요.

또한 우리가 성결을 이뤄야 사랑 자체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영적인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 되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결을 이루라” 하심은 최고의 사랑 표현이요, 첫 사람 아담이 타락하므로 잃어버린 영적인 권세와 능력, 모든 축복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4. 하나님께서 성결로 이끄시는 방법

성결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온전하고 흠이 없는 성결 된 자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죄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만드셨지요. 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친히 보고 따를 수 있는 모델을 세워 주심으로 믿는 이들이 더욱 성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중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친히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범사에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일흔 번의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를 베푸심으로 그 행함을 좇아 우리도 사랑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섬기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신속히 성결을 이루며 주님을 온전히 닮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아무 흠이나 티가 없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신랑 되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탄식합니다

주님을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 받아 처음에는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곤고한 탄식의 소리가 나오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처럼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롬 7:24). 이는 그만큼 ‘나라는 것을 깨뜨려 감에 있어서 날마다 죽어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신속히 돌이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기질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많고 부정적인 사고의 습관이 있거나, 아직 마음에 죄성이 남아 있는 데다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보다는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앞서 있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대부분 진리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면 성령이 기뻐하시니 내 안에 기쁨이 넘쳐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만큼 행하지 않으니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지요. 이때 오히려 감사하며 그 원인을 찾아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허물을 알았을 때 어떻게든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또 상대가 허물이 있는데도 그 죄값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는 답답해하지요. 더욱이 그 상대가 칭찬받거나 인정받을 때는 더 답답해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전해야 속이 시원하고 그 사람

이 죄값을 받아야 그 마음이 시원한 것입니다.

만일 상대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리할까요? 물론 무조건 죄를 덮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 사람에게 권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참케 하며,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는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마 18:15~17).

평강과 안온, 안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염려와 근심이 있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지 못하니 내가 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서 평강이 없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 소망이 없기에 이 땅의 미련으로 인해 평강이 없고, 죄의 담이나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또 기도하지 못하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진리 안에 거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므로 충만함이 옵니다. 영혼이 잘돼야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평안해야 안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이뿐 아니라 마음에 천국이 이뤄져 참된 안식도 누릴 수 있습니다.

“56년 된 변비를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강기화 집사 (76세, 2대대 12교구)

저는 20대 초반부터 변비가 생겼는데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점점 증세가 심해져 7일, 많게는 15일 만에 배변하기도 하였습니다. 관장약을 투여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는 화장실 한 번 가는 것이 큰 고통이었지요. 이렇게 56년을 살아왔습니다.

2023년 3월 6일 아침, 누룽지를 먹었는데 이상하게 비위가 상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후 배가 아프고 속이 불편하더니 아래위로 쏟았지요. 저는 몸이 불편했지만, 그날부터 작정 다니엘 철야가 시작했기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며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며칠간 더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숙변을 청소하는 과정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변비가 사라져 매일 시원하게 배변하니 뱃살도 빠져 몸무게가 2.5kg이나 줄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제게는 놀랍고 신기한 일일 뿐 아니라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예민한 성격으로 화를 잘 냈는데, 하나님 말씀을 좇아 행하고자 힘쓰니 이제는 유순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 기도를 받으니, 건강도 지켜 주셔서 3월 21일 건강 검진 결과 시력도 좋아지고 모든 기관이 정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주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기뻐하시며 56년 된 변비를 치료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십견, 갱년기 증상, 발목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정재희 권사 (53세, 2대대 11교구)



2022년 봄, 오른쪽 팔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점점 통증이 심해져 집안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매우 힘들고 잠자다기도 통증으로 인해 깨곤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으니 오십견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두 달 동안 갱년기 증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콩닥콩닥 뛰면서 불안해 가슴을 부여잡고 울기도 하고,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순간순간 일어났지요.

하지만 곧 있을 작정 다니엘 철야와 은사 집회가 축복의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 힘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2022년 5월 9일 작정 다니엘 철야 첫날부터 성령 충만함 속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고, 누군가를 불편해했던 마음이 떠올라 통회자복도 하였습니다. 26일에는 8개월 된 오른쪽 발목 통증으로 걷기가 힘든 데도 예배실 청소를 기쁜 마음으로 하였더니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5월 27일에는 GCN방송으로 금요철야예배 은사 집회에 참석해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그 뒤 찬양할 때 오른쪽 팔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니 통증 없이 잘 움직여졌고, 마음에도 평안함이 임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증상이 싹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선하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주님,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권능의 기도로 딸의 선천성 안면 기형을 치료받았어요!”

마르따 아마자 성도 (40세, 베네수엘라 파나마메리카노만민교회)



예전에 저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복음을 듣고 열심히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면서 성격이 바뀌었고 제 삶도 변화되어 기쁨과 평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권능의 기도를 받고 위통과 두통, 어지럼증을 치료받아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던 남편도 주님을 영접해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받아 우리 가정에 행복한 일도 있었지요. 사랑하는 막내딸 다자나는 얼굴이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다자나를 출산했을 때 딸의 얼굴 오른쪽 부분이 눌러 한쪽 눈이 튀어나와 있어 얼마나 놀랐던지요. 제가 다자나를 임신하기 전에 수술받았는데 몸의 회복을 위해 압박 속옷을 입어야 했고, 임신한 후에 도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착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따 아마자 성도(오른쪽에서 세 번째) 가족 ▶

하지만 장정연 담임목사님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 받은 뒤, 딸은 온전히 치료받아 얼굴이 정상이 되었고 눈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지요. 이제는 주 안에서 예쁘게 성장해 예능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사랑으로 이끄시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명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로로 129 향아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